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4월 29일 (다섯째 주일)

성경본문 : 행19장 6-7절

설교제목 : “예언도 하니”

성령이 임하시므로 나타난 또 다른 증거는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6절)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예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페티오’는 구약에 사용된 히브리 동사 ‘나바’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나바’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맡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결코 미래를 점치듯 알아맞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 예언자에서 ‘예’는 ‘미리 예(豫)’자를 쓰지 않고, ‘말을 예(預)자를 씁니다. 따라서, 예언자란 ‘앞 날을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언자와 가장 가까운 표현이 ‘대언자’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미래를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기능이 아닙니다. 결국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해주는 메신저입니다. **미가3:8에 보면**, 참된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이 필요합니다. 둘째, 능력, 정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참된 설교자의 자격도 동일합니다. 반드시 설교자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고, 설교자는 설교에 대한 자신감과 바른 설교에 대한 갈망과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아픈 소리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시대의 예언자는 단지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행2:17-18에 보면**, 성령이 임한 자들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못을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임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써,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고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바르게 세워주는 삶을 사는 이 시대의 나비(예언자)인 것입니다. 정확한 예언과 건전한 예언은 모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곧 예언입니다. **시119:105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고 말씀합니다. 등은 밝혀주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란 현재의 삶을 말씀이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발에 등이란 말씀이 현재를 해석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내 길의 빛은 내가 가야할 미래의 길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내 길에 빛이라는 것은 말씀이 미래에 대한 지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현재의 삶을 조명하여 해석하게 하고, 내 앞날의 길을 비추는 예언적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자신의 현재를 분별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 6절에 기록된 ‘예언하다’는 헬라어 ‘프로페티오’는 ‘앞으로’, ‘내다’, ‘대신’이란 뜻의 ‘프로’와 ‘말하다’는 ‘페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언하다는 의미는 앞서 말한 대로 ‘대언하다’란 뜻과 더불어 ‘미리 말하다’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은 미래의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고해 주거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가령 **사도행전 21:10-11**을 보면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임을 미리 예언합니다. 이처럼 예언의 은사는 미래의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고하거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정통 보수 합동 측이므로 칼빈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기적증지론과 더불어, 예언의 은사는 설교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예언의 은사가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데, 종종 우리 마음 혹은 생각에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20**에서 분명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고린도전서 14:1**에서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언의 은사는 성도를 안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고전14:3-4**) 또한 예언은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합니다.(**고전 14:24-25**) 또한,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기도 하십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제목을 주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예언의 은사는 통찰력을 제공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역과 방향 설정이나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언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언자의 삶이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고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바르게 세워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맡은 예언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함으로써, 성도를 안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잘못을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여, 교회의 덕을 온전히 세워 나가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성령의 임하심은 황홀경에 빠지고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예수가 주시라는 고백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 나누어보기

- 1)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예언의 은사가 가지는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예언의 은사는 미래의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고하거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예언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4)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